

산후조리원 가동률 60% 미만... “공공성 강화를”

제주여가원, 제주 산후조리원 실태·지원 방안 연구 산후조리원 선호도 63.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산후조리 정책 미흡... “정신건강 지원 강화해야”

제주 지역 산후조리원 가동률이 60% 미만인 가운데 민간 시설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 지역 산후조리원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책임 정여진 선임연구위원)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총 452개소이고 이 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다. 제주는 7개

소(제주시 5, 서귀포시 2)로 제주시는 모두 민간 시설이고 서귀포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와 서귀포의료원 부설 조리원 1개소가 있다. 가동률은 평균 54.5%로 낮은 편이나 시설에 따라 6%에서 90.9%까지 차이가 컸다. 입산부실이 적은 영세한 시설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실태 조사(2021년)를 근거로 제주 지역 데이터도 2차 분석했다. 그 결과 제주

산모들은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63.6%)을 가장 선호했지만 전국에 비해서는 14.5%p 낮았다. 반면 본인 집과 친정은 전국에 비해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201만 4000원으로 전국에 비해 41만 7000원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서귀포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제외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 금액은 약 36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들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 '배우자 육아 휴직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수요는

제주 전국에 비해 5.6%p 높았다.

이에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과 공공성 강화 ▷취약 계층 산후조리 비용 지원 확대 ▷배우자 대상 임신·출산 교육 확대 ▷가정 산후조리를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강화 ▷산모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제주도의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총 32개 사업 중 24개가 임신과 출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산모의 신체적 건강 관리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지원 등 출산 후 산모에 대한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7일 금요일 음 2월 8일 (조금)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4℃, 낮 최고기온은 11-12℃로 예상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30%
20%	성산	30%
10%	고산	30%
20%	서귀포	30%

해돋이 06:55	달뜨기 11:35
해질 18:35	달짐 01:56
물때 만조 05:15	간조 11:31
15:43	23:12

주간예보

내일 흐림 7/12℃

모레 구름많음 7/14℃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교권보호위원 교사 확대를”

전교조 제주지부 촉구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지역교육지원청(제주시·서귀포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71명 가운데 교사는 7.0%인 5명에 그쳤다.

교권보호위의 나머지 위원 비율을 보면 교장·교감 14명(19.7%), 학부모 16명(22.5%), 변호사 9명(12.7%), 교사 5명(7.0%), 기타 27명(38.0%)이다.

또 지난해 제주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된 건수는 58건에 달하며 1년 수업일수(190일)를 기준으로 할때 평균 3~4일에 1건씩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핵심 기구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사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한수리 어촌계 풍어제 6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포구에서 제주바다의 풍어와 안전조업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열렸다. 강희만기자

올해 제주 학생에 안전체험 학습비 지원

도교육청, 학생 안전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학생 안전을 위해 안전체험 학습비를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학생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운영되는 안전체험 학습비 지원은 851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중·고등·특수학교 19개교 학생들이 제주안전체험관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교 1일형 현장 체험학습 운영 시담임 교사와 함께 학생 인솔을 담당할 보조 인솔자 경비를 총 1000학급에 지원한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안전에 대

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교 맞춤형 재난 안전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된다.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의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능력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초등학교 85개 학교에 163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분기별 안전점검 강화,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한다. 박소정기자

올겨울 제주, 관측 이래 가장 건조

평균 상대습도 56%에 그쳐... 서귀포는 2003년 기록

기상청 2024~25년 겨울철 기후특성·원인 분석 결과

올겨울 제주의 평균 상대습도가 1923년 5월 1일 관측 개시 이래 102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습도는 기온에 따른 습하고 건조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며 낮을수록 건조하다는 의미다.

기상청은 2024/25년 겨울철(2024년 12월~2025년 2월) 기후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0.4℃로 평년(0.5℃)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2.4℃, 1973년 이래 2위)보다 2.0℃ 낮았다.

겨울철 강수량은 39.6mm로 평년대비 43.6% 수준으로 역대 하위 4위였고, 역대 1위로 많았던 지난해 대비 1/6 수준이었다. 대륙고기압이 주로 서해상으로 확장해 해기차(해수면 온도와 대기 온도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

진 눈구름의 영향을 받은 서쪽 중심으로 눈이 내렸지만 강수량은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의 제주대 강수량은 103.5mm로 평년 184.7mm에 견줘 57.2% 수준에 머물며 하위순위 6위 수준을 보였다.

제주의 겨울철 평균 상대습도 최소 순위도 2024년 56%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 2007년 57%, 3위 2001년 59% 등이다. 서귀포시는 2003년 55%로 관측 이래 가장 건조했고 2024년 58%로 2위, 2001년 60%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제주의 2월 평균 상대습도 최소 순위는 1위 2008년 52%, 2위 2002년 55%, 3위 2004년 57%에 이어 올해 59%로 4위를 차지했다.

제주도 전체 겨울철 합계 강수량은 관측 개시 이래 1위 1983년 60.5mm, 2위 1995년 73.7mm, 3위 1987년 80.0mm, 4위 2021년 90.1mm, 5위 2024년 92.6mm 등이다. 백영탁기자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5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3,0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윈터프린스 /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5년 예약 중 무병묘 / 포트묘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카라향 / 황금향 /
하갈 / 팔삭 / 자몽 / 레몬 /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종자등록번호 15-삼양-2023-70-02

나주농장

저희 농장은 **2024년 맹자묘목 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장입니다.
최고의 묘목을 선점, 분류하여 판매 하겠습니다.

1년생 500원

2년생 800원

대표 번호 010-8739-0112
010-4150-7360

농협 계좌 352-0726-2187-03(김용길)

씨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트 - 카라향 2년 - 달콤 - 미래향 - 감평 - 한라봉 2년

‘씨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권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씨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접순 나눔(고점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트로 판매를 못합니다. (적발시 형사처벌 합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27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